

# 사설

## 조계종 종회 왜이러나

조계종의 '개혁불사'가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3년전 조계사에서 '법승가중단개혁추진회(법중추)'가 출범했을 때 그 순수한 구공의지와 구도의 길로 매진하려는 개혁적 스님들의 모습이 점점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이번 제125회 조계종 결산총회(종단개회총회)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3월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열린 총회는 유희를 거듭한 후 자동 폐회되고 말았다. 조계종이 생긴 이래 이렇게 안건 하나도 처리 못하고 성원미달로 폐회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70년대 동국대 관선이 사 선임을 막기위해 교권보호차원에서 회기를 38일동안 끌었던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총회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유희되고만 직무유기사태는 찾아볼 수 없다. 문제가 있으면 더욱더 총회는 열려야 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종단의 현안을 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록 회의의 진행의 기술이 어설피더라도 종단의 대의기구로서의 최소한 기능은 수행해야 한다.

이번 중앙총회의 행태를 보면서 많은 종도들이 개혁종단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중앙총회원들의 자질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됐다.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중앙총회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고,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중앙총회를 의도적으로 유희시키고, 의회기능을 마비시킨 진상을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종단의 반개혁적 행위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도 져야한다.

지금 나라꼴을 보면 각종 부정부패로 인하여 위기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데 책임질 양심적 지도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종단도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

중앙총회원 모두가 우선 종도들의 뜻을 저버리고 제대로 성원도 못시킨 '직무유기'에 대하여 깊은 자성과 참회가 있어야 마땅하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총회회의 자체를 일관불태한 결과를 초래하여 시급한 종단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그 실마리라도 찾으려는 노력도 없었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크게 위배되는 일이다.

둘째, 중앙총회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고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앙총회는 명실공히 종원총회에 근거하여 의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부대중의 대의기구이다. 산중종의 대중공사의 전통적인 불교정신을 말살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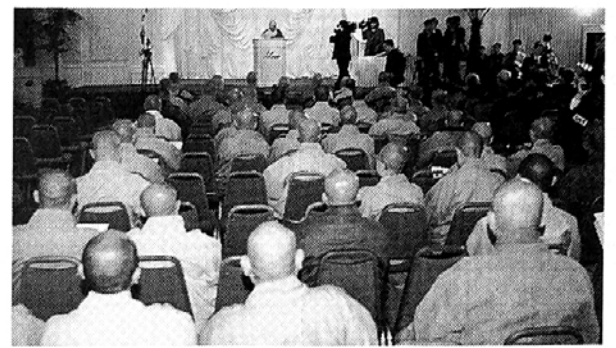
진정한 한국불교의 종중과 대중불사를 위해 중앙총회는 의회기능과 비판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

셋째, 중앙총회가 대의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조계종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법하게 제율을 지키고 수행과 정법수호에 앞장서야 한다. 세속의 정치권에서 흔히 볼수 있는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회합의 참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조계종단 지도부는 개혁불사를 추진하는데 중심이 흔들리고 있고 이해관계에 편승해서 사분오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도들이 우려하고 있다. 중앙총회는 출범 초기 열띤 안건토론으로 회기 마지막날 자정까지 진행했던 생산총회의 면모를 되찾아야 한다. 사부대중이 사심을 버리고 힘을 모아 구종법회를 열어 종단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부르짖던 개혁불사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난 3월 31일 엠베서더호텔에서 열린 동국대학교승가총동문회(회장 월탄) 주최 정치지도자 초청강연회는 3당 대표의 종교관 및 불교에 대한 이해도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정치지도자가 기대하는 종교인의 역할'이란 주제의 이번 강연회에서 3당 대

표는 오늘날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 종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민족불교인 불교야말로 호국, 사회발전, 국민계도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한결같이 정치의 종교 중립을 강조했다. 3당 대표가 기대하는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편집자 주)



◇3당 대표는 모두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역할이 막중하며, 특히 불교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 열린마당

## 종교의 역할 동국대 승가총동문회 3당대표 초청강연



이희창 <신한국당 대표>

종교는 절대적 가치와 진리를 추구하나 정치의 상대적인 가치와 진리로 만족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절대적인 가치가 헌법의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종교는 정치의 관심을 떠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와 종교는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먼저 종교인은 민족과 국가의 존립과 융성에 이바지 할 사명이 있다. 특히 불교는 우리민족의 운명과 더불어 국가의 존립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신라의 화랑도에서부터 고려 팔만대장경, 일란에서 승군의 역할, 만해의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온 호국신앙으로 요즘들과 같이 혼돈과 어두움이

### 정치·종교 상호 존중·협력관계 교육·자선 사업 통한 국민교화

가득한 국난의 시기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국가의 건전한 유지에도 종교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종교적 입장에 근거해 행하는 건전한 국정비판기능은 국가의 자기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다만 종교의 절대적 진리를 막바로 정치의 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따라서 종교적 입장표명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이나 종교적 신앙을 가진 정치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셋째, 종교인은 종교 본연의 영역인 교육과 자선에 기여할 수 있다. 현대국가의 교육은 국가와 부모, 종교단체의 공동영역이다. 특히 종교인들의 설법과 강론을 통한 시민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것도 종교인의 숭고한 역할이다. 또 북한 동포들을 위한 민족적인 도움의 기반도 종교인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

불교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 첫째 민족문화유산 보존에 힘써주시길 부탁한다. 종교재산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라면 국가도 마땅히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둘째 지구환경보호에도 기여했으면 한다. 불교는 자연과 일체된 조화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이니만큼 불교의 절대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종교의 으뜸 역할은 개인의 정신적인 구원과 사회 전체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소승과 대승이 하나가 되어 발전하는 것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인구원과 사회구원 모두가 이같은 역할을 맡는 것이다.

사회정의 실현도 종교의 역할 중 하나다. 21세기는 급속한 격변을 맞고 있다. 여기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신적 혼란과 불안에서 사고, 범죄 등으로 타락할 수 있는데 종교가 이들에게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르쳐서 변화에 자신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간여해서는 안되나, 정치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교화하고 잘못이 있

### 정치 正道 가도록 중도적 비판 사찰환경 파괴 다함께 풀어야

으면 비판해야 한다. 세계 4대 종교도 그렇게 해왔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종교생활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자신의 종교생활을 유보한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다만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 타종교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마땅하다.

해방이후 50여년간 국가정책에서 불교가 불공정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불교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종교를 차별하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불교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인류를 위해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

최근 국토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사찰환경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찰자체는 곧 문화재다. 이같이 인식하고 있다면 사찰환경을 파괴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회의는 집권하면 못하든 불교계가 이와 같은 문제들로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밝혀둔다.

불교는 일체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는 불교가 환경문제를 푸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종필 <자민련 총재>

우리는 정치와 경제 사회가 파산지경에 이른 총체적 위기의 오늘을 살고 있다.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면서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새로운 대전환을 이룩해야만 오늘날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덕 높은 스님 여러분이나 승가동문 여러분의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성과 헌신이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스님 여러분께서 노심초사하는 그대로 21세기를 제대로 열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한국불교가 법난을 당하고 교의(敎義)의 다름으로 인해 정권과 갈등을 빚었던 것도 모두 절대권력 때문이다.

### 호국불교정신 국가 위기 극복 깨·사운동 정치 실천덕목으로

한국불교는 1천6백여년동안 민족과 함께 영교성쇠(榮枯盛衰)를 같이 해왔다.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 호국불교로서 국민의 기둥이 되고 등불이 되었다. 나라가 미증유(未曾有)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때, 한국불교의 호국정신이 유감없이 발휘되어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금년 회호를 (벽암록)에 나오는 '졸락동(鵲嶽洞) 機'로 삼았다. 불교적 해석으로는 수행이 성숙하여 깨달음을 얻어 가는 제자에게 스승이 민들레를 주지 않고 깨달음을 완전한 경지로 이끌어 들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민과 정치가 졸락동기가 되어 한을 한 뜻으로 나라의 운명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스님 여러분의 큰 이끄실과 가르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일체중생이 불성이 있다는 제불사상을 현재화(現在化)하여 한국정치의 참길을 일깨우고, 중생을 부처님, 의 지혜에 이르게 하는 대승불교적 차원에서 국민을 구도해 주시 바란다. 또 탐·진·치 삼독을 씻고 나를 버리는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이 우리 정치에서도 최고의 덕목으로 인식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기대한다. 마음이 곧 부처라는 심즉시불(心即是佛)로 마음을 깨우치고 정신을 일으켜서 신심일여(身心一如)의 경지로 우리 사회를 인도해 주시길 기원한다.

현대만평

737-8881

## 현대만평



조계종 개혁 3주년

## 종단개혁 3주년에 즈음하여

### 94년 종단개혁은 사부대중의 자주적 역량의 결과입니다.

전 종도들의 원력이 모여 시작되었던 개혁불사가 어느덧 3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94년 개혁불사 이전 종단은 정치권력과 유착한 일부 권력자들이 종단을 유지하는데 급급함으로써, 불교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종단의 분규상을 국민들에게 보여왔습니다. 그에 따라 불교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속에서 이 사회와 민족을 향도하는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총무원장의 3선연임을 반대하고 종단개혁을 요구하며 전 종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개한 329구중법회와 410승려대회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이 천만 불자 모두에게 희망과 가슴벅찬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부패한 종권을 유지시키려는 편파적인 공권력과 폭력행위를 극복하고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의 대장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출·재가를 떠난 사부대중 모두의 자주적 역량이 발휘된 결과입니다.

### 현 종단은 제도개혁을 통해 종단의 중심을 튼튼히 세워 왔습니다.

개혁회의를 계승하여 출범한 현 종단은 지난 2년여 동안 개혁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제도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개혁불사 이전 20여대에 불과하던 종단 예산이 올해 200억에 가깝게 늘어나고,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이 교육, 포교·역경·사회복지·문화 등 종단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직영·특별 분담사찰의 지정과 운영 예산회계제도 그리고 사찰에 대한 지도감사 등을 통해 사찰과 종단의 재정 운영이 투명해진 결과입니다. 또한 이미 사용중인 회계프로그램과 더불어 승적관리·종단소유부동산·교육·포교등 증무행정 전반에 대한 전산화가 하반기까지 완성되어 지난 2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증무행정의 체계가 확립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전근대적 증무행정의 질적인 비약의 의미하며 더불어 삼보정체가 수행과 교화에 사용되어 종단분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승가교육과 포교의 중요성에 대한 종도들의 요구를 받들어 벌원화된 교육원과 포교원 제도와 내실화 또한 제도개혁의 핵심사업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지난 2년여동안 증무행정의 체계화와 더불어 벌원화된 교육원과 포교원의 제도 정착을 위한 종단의 노력은, 개혁불사의 정신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이었으며 한국불교 중흥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 개인과 사중의 이해를 우선하는 종단의 구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올해는 불교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될 불교중앙회관의 건립과 중앙승가대학 이전이라는 종단적 불사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도들의 의지가 하나로 모아져 융행정진해야 할 지금에, 개인과 사중의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증무행정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직영·특별분담사찰의 지정은 결격금지, 총무원장 권한 축소 및 산중총회를 통한 교구본사 주지선출, 교육원과 포교원의 벌원화와 더불어 개혁불사의 상징입니다. 더구나 직영사찰의 지정은 사찰의 재정을 양명하게 함으로써 재원으로 인한 분규의 씨앗을 제거하고, 그 재원을 종단목적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종단과 불교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1억원에 불과하던 선본사의 1년예산이 2년을 거치면서 37억원으로 무려 3배이상 증가하여 투명하게 관리 운영된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지속적인 종회의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는 선본사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시비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명분으로 선본사의 직영사찰을 해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개혁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부패한 승려들의 사금과 역할을 하던 개혁불사 이전의 선본사와 직영사찰 지정으로 재정이 양명해진 현재의 선본사를 비교해볼 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구적인 가 모든 종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직영사찰 지정이후 선본사의 재정이 대구지역의 불교발전(대구 불교방송 출연금 등 8억원)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 대폭 증가되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불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든 종도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승가교육은 이제 구체적으로 내실화되고 현실화되어야 하며,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개인과 사중의 이해에 집착할 때 종단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근자의 모습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단과 불교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개혁불사의 기본정신을 유지·계승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개혁불사의 원성은 개혁을 염원하는 종도들 모두의 몫입니다.

종도들의 숙원사업인 중앙승가대학교의 정규대학교 승격, 중앙신도회 창립, 파라마타 청소년 협회를 결성하여 청소년 포교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종도세 비과세 실현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불교방송 지방국 개국 등 불교계의 대정부원안이 해결된 데는, 종단의 안정과 함께 대사회적 활동의 강화에 따른 불교의 위상이 높아진 결과입니다. 근세불교의 역사를 통해 보듯이 종단이 허약하고 혼란하면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종단의 자주화는 종단의 지속적인 개혁과 안정이라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종도들의 화합을 이루어 종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나가야 할 증무행정의 책임자로서, 종단 내부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여 종단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선본사를 둘러싼 문제제기 또한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떠나 종도들의 화합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 등 선본사의 운영에 대한 관리를 더욱 합리적으로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저는 개혁정신을 뒤흔기는 일부의 기도에 주저함이 없이, 94년 드디어 모아졌던 전 종도들의 염원을 받들어 94년 개혁불사의 완성을 위해 제2의 개혁불사 추진을 향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54년 불교정화운동의 이념을 계승한 94년 개혁불사는 개혁을 염원하는 종도들 모두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제2의 개혁불사 또한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를 염원하는 종도들의 책임있는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종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불기 2541(97)년 4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 월 주